

전주시, 글로벌 스포츠 도시 협력 강화

우범기 시장, 5~11일 호주 브리즈번·멜버른 찾아 해외 선도 도시 인프라 조성 전략·국제교류 방안 등 모색키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출장 길에 오른다. 우범기 시장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4박 7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스포츠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선도 도시들의 인프라 조성 전략과 지역 기반 스포츠 생태계 운영 모델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과 멜버른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호주 방문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역량 강화와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확충,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스포츠 산업과 연계하는 해외 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비교·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 시장은 먼저 브리즈번 시청을 방문하여 샌디 랜더스 시의장 및 국제스포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셉톱스타디움과 더 가바 등 다목적형 경기장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검토한다. 이어 우 시장은 멜버른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의 스포츠 인프라를 문화·관광 산업 자산으로 장기 재생산하는 데 성공한 운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우 시장은 멜버른 파크와 크리켓 그라운드 등 글로벌 수준의 경기장 클러스터를 방문해 연중 행사 운영 구조와 시민 접근성, 문화행사 유치 전략 등을 분석하고, 멜버른시의 CEO 및 시의원들과 만나 스포츠·문화·관광 분야 등 우호협력 공동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 시장은 빅토리아주 한인회 및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 관계자와

의 간담을 통해 국제교류, 문화·관광 연계 협력 기반 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가 이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도시의 역량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폭넓게 확장해 전주가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문화관광작업 1층)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개관 막바지 준비 한창

우범기 전주시장,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특산품을 구매하며 다양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이 전주 남부시장에 들어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문화관광작업 1층)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현장에서 남부

시장 백년시장 공모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부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은 2017~2018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옛 원예공판장 건물 1층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비롯해 공연장과 식음료 판매, 여행자 라운지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이 개관하면 현재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2층 문화공판장 작업장과 더불어 남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강화

전주시보건소, 맞춤형 노인 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한 노년과 자립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자 관리, '오늘건강' 사업,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맞춤형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이 50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해 혈압·혈당

등 기초검진과 질환 관리 교육 등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 조절이 안 되는 집중관리군 35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8회 방문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한랭질환에 취약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1350명에 대해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내복과 장갑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대비해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및 충분한 영양 섭취 △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 △외출 전 날씨 정보(계감온도 등)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하게 옷 입기(내복, 얇은 옷

겹쳐 입기) △방한용품(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사용하기 등 겨울철 건강 수칙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질환에 대비해 초기 증상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경로당사업 외에도 비대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건강 돌봄을 촘촘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우아1동 새마을부녀회 지역아동센터서 식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동장 송정하)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수)는 지난 3일, 우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 40여 명에게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 등 식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9월 27일 우아동 동민의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수입금으로 40여 명 어린이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풍요반점에서 짜장면, 탕수육을 주문 및 배달하고 굴, 떡,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저녁 식사 나눔을 실천하고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구변화 정책방향·도시운영전략 포럼 개최

전주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고령화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4일 청년이음전주 5층에서 인구 감소가 도시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주형 인구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변화 정책방향과 도시운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시와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시계획·인구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예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문동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전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인구정책 목표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활발한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U.B 소장, 최창성 전주



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이보순 전주시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계획, 연구기관, 의회, 교육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운영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영상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전주시의회의는 4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례 기반 영상 작품화를 통한 전주시 영상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의 역사·문화·생활 등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과 사례를 작품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운철 의원(북지환경위원장, 중앙·풍남·노송·인후3동)과 전서영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건 교수는 '투구봉 사례연구 중심의 지역사례 기반 영화제작을 통한 전주 영상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건 교수를 좌장으로 △그린퍼쉬 스튜디오 신연철 PD의 타 지역 대표 지역 영화 및 소재, 지역 사례 △전북연합신문 임종근 국장의 '도시 경쟁력, 영화로 있다' △전주시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의 전주



시 지역기반 영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운철 위원장의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있는 도시로' 등을 주제로 전주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운철·전서영 의원은 "전주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영상산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전주를 담은 작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OCI는 기초화학,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OCI GLOBAL LEADING ADVANCED MATERIALS COMPANY